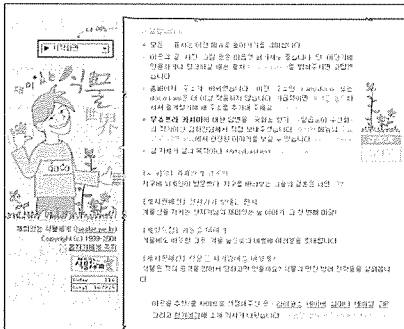


## 재미있는 식물세계

<http://www.healer.pe.kr>



잠들어 있는 들과 산을 깨우는 봄바람이 부는 3월. 냉이와 쑥과 같은 봄나물과 온갖 식물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.

하지만 도시의 아이들은 반찬으로 올라오는 쑥과 냉이는 알아도 그에 대

한 생태와 특징은 잘 모르는 경향이 다.

여기 소개하는 '재미있는 식물세계'는 각종 식물을 이름과 분류별로 정리해줘 식물의 생태와 식물의 특징, 그리고 사진을 통한 식물의 모습까지 상세히 알 수 있다. 특히 홈페이지 운영자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관계로 한의학과 관련된 식물의 특징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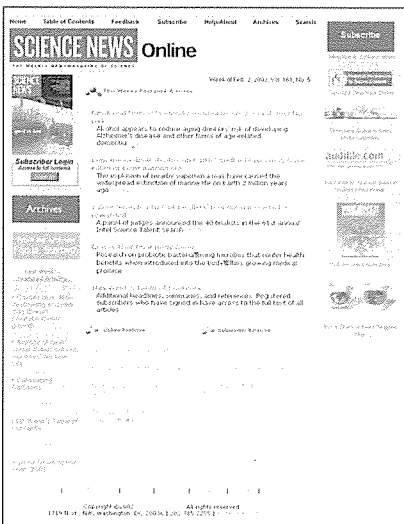
이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봉선화에 대한 설명을 예로 들어본다. "봉선화과(Balsaminaceae) 식물로 봉숭아라고도 하며, 영어 이름은 touch-me-not입니다. 봉선화는 중국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. 꽃 모양이 마치 봉황새 같다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봉숭아라고

더 많이 불렀습니다. - 중략 - 우리에게 가을이 다가오면 손톱에 빨강계 봉선화물을 들이는 풍습이 있습니다. 이러한 풍습은 매우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며, 그 유래는 최소한 백제시대 이전부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옛날엔 남자 아이들도 봉선화물을 들었다고 하는군요. 이것은 봉선화가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-중략- 봉선화의 꽃말은 성급한 판단,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..."

각 식물 설명 마지막에 제공되는 꽃말은 사춘기 여학생들의 감성을 충만하게 만드는 요소. 이외에도 식물을 중심으로 바라본 '[X-파일] 외계인의 결론?' '[계절특집] 겨울술 이야기'와 같은 독특한 내용도 제공된다.

## 사이언스뉴스 온라인

<http://www.sciencenews.org>



1922년에 처음 등장한 사이언스 뉴

스는 미국에서 주마다 발행되는 유일한 과학잡지로 매주 16면으로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20여만부가 판매되고 있다.

매주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매달 발행되는 잡지에 비해 정보가 빠르며, 잡지의 특성상 매일 제공되는 과학뉴스보다는 좀더 심층적인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이 사이언스 뉴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.

사이언스 뉴스 온라인은 잡지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텍스트 위주로 옮겨 놓은 형태다. 하지만 이중에 대다수의 정보가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다.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사는 1996년 4월 25일 이후부터 사이언스 뉴스에 게재된 기사중 18% 가량이다. 하지만 참

고문헌은 모두 제공된다. 나머지 기사는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데, 책 모양 그대로 기사를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PDF파일까지 제공된다.

다음은 최근 사이언스 뉴스에 소개된 재미있는 기사 중 하나. '적당한 음주가 치매 예방'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당한 음주는 피의 엉킴과 응어리는 현상을 방지해 심장혈관 내 흐름을 좋게 만드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해, 건강을 해치기도 이롭게도 하는 술의 양면성을 알리고 있다. ㉓

朴應緒 (동아시아인 기자)